

## 정화예술대학, 뷰티한류 중국 진출 발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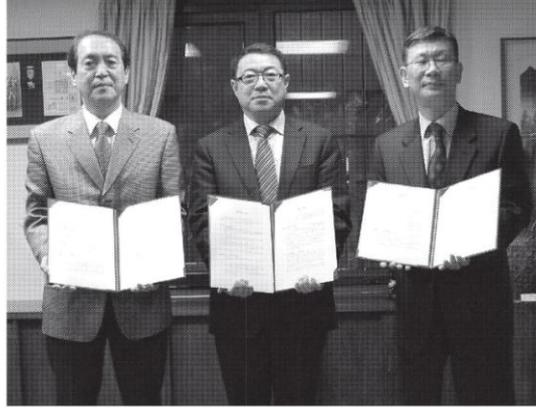
중국 손진국제교육집단 · 칭화대학 학교기업 다오지중화와 합작의향서 체결

미용교육의 산실인 정화예술대학(총장 허용무)은 지난 1일 명동캠퍼스에서 중국 직업교육기관인 손진국제교육집단과 중국 칭화대학 학교기업 다오지중화와 합작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에 따라 정화예술대학이 지난 60년간 발전시켜온 미용 교육모델을 중국 미용체인점에 제공해 양국의 미용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정화예술대학의 미용교육모델을 중국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이고 실질적인 뷰티한류 중국 진출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손진국제교육집단과 다오지중화에서 개설예정인 중국내 1,800여개 미용체인점의 미용인력 모두 정화



허용무 정화예술대학 총장, 손진 손진국제교육집단 이사장, 양필승 다오지중화 한국 대표이사(왼쪽부터)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술대학의 미용교육모델을 통해 교육과 실습을 받을 예정이다.

정화예술대학은 지난 1951년 국내 최초로 미용학교를 설립한 이래, 60년 동안 모두 2만6천여명의 미용인력을 양성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유명 미용인 증 상당수가 정화예술대학 출신이다.

중국의 손진국제교육집단은 장춘을 중심으로 모두 5개의 캠퍼스에서 현재 3만여명이 재학 중인 중국 최대 직업교육기관이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전문대학으로 승격했으며 칭화대학의 학교기업인 다오지중화와 함께 중국 북방지역에서 미용체 인사업업을 준비 중이다.

유인숙 기자